

예술계 “미안마 위해 세 손가락을 들어 주세요”

‘세 손가락 경례’ 제작 SNS 공유...회화·조각 등으로 미안마 지지
전남도립국악단, 뮤직비디오 ‘피스 인 미안마’ 31일 유튜브 공개
광주문화재단, ‘님을 위한 행진곡’ 이어부르기 참가자 모집

지난 2월 발생한 미안마 군부 쿠데타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쿠데타로 연일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는 지금의 미안마는 1980년 광주와 같은 모습이다. 이에 종교계, 시민단체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은 미안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술계도 동참했다.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미안마 군부 쿠데타의 즉각적인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응원하는 ‘세 손가락 경례(Three-finger salute)’ 작품을 제작해 SNS에 공유하는 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며, 미안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뮤직비디오 제작, 시민참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미안마 예술가들이 설립한 캠페인 허브인 ‘Raise3Fingers’는 최근 네이버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지역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연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했다.

‘인권,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세 손가락을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은 ‘모든 아티스트와 창작자의 소환’으로 시작하면서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한 미안마 투쟁을 상징하는 경례로서 세 손가락을 들어 글로벌 경례에 함께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손가락 경례’는 2012년 영화 ‘헝거 게임: 판엠의 불꽃’이 모티브로 알려져 있다. 영화 속 시민들이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는 방식이었다. 검지 중지 약지의 세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곧게 펴는 형태로 2014년 태국 반정부 시위에서 처음 등장했다.

예술가들이 회화, 드로잉, 조각, 애니메이션, 노래, 춤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안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작품을 만들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 #Threefingers, #FightWithArt, #WhatsHappeningInMyanmar 등 해시태그를 달아 더 많은 친구와 동료들을 캠페인에 초대해 미안마의 민주화에 도움을 주자는 계획이다.

현재 ‘Raise3Fingers’ 홈페이지와 SNS에는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다양한 나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게시돼 있으며, 작품들은 추후 전시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은 오는 31일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를 통해 미안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뮤직비디오 ‘피스 인 미안마(Peace in Myanmar)’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50여 년의 군부 독재 끝에 어렵게 피어낸 미안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간결하지만 묵직한 음악적 언어로 미안마 국민들에게 치유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비벨(Non-Verbal) 구음(口音)과 영상을 통해 미안마를 향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에 동참하고자 했다.

특히 지난해 전남도립국악단이 선보였던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작 오라토리오 집체극 ‘봄날’ 수록곡 중 하나인 ‘구름 살풀이’를 메인 테마곡으로 사용해,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 속에서 꽃피워낸 민주화가 2021년 오늘의 미안마에서도 꽃피우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냈다.



전남도립국악단은 미안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뮤직비디오 ‘피스 인 미안마’를 오는 31일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를 통해 공개한다.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미안마 민주화 투쟁 지지 시민참여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재단은 공연예술 콘텐츠로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의 확산을 위해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사업을 진행, ‘님을 위한 행진곡’ 이어 부르기 챌린지를 추진한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윤상원,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곡으로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투쟁의 현장에 늘 함께해온 민중의 노래이자,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곡으로 자리 잡았다.

다. 최근에는 홍경 집회 등 국외에서도 권위와 독재에 저항하는 곡으로 불렸다.

미안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시민 누구나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6개팀(개인 및 2인 이상 단체)의 영상을 편집해 유튜브 채널 광주문화재단TV에 게시할 예정이다.

오는 4월4일 오후 6시까지 영상파일과 참여자 이름, 연락처를 기재해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 세계 예술가들은 회화, 드로잉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안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작품을 만들어 ‘Raise3Fingers’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들.



귀여 영화 ‘정말 먼 곳’
감독·배우와의 대화
광주극장 4월4일



개봉 전부터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화제가 된 귀여 영화 ‘정말 먼 곳’(사진)의 감독 박근영과 배우 강길우, 기주봉 등을 만날 수 있는 관객과의 대화(GV)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극장은 오는 4월4일 오후 3시30분 영화 상영 후 김희정 감독의 진행으로 GV를 진행한다. 이날 GV에서는 영화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은 진우(강길우 분)에게 뜻하지 않은 방문자가 도착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일상을 담은 이 작품은 강원도 화천의 한 목장을 배경으로 한다.

제26회 서울독립영화제,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제24회 탈린블랙 나이즈영화제까지 국내외 영화제에서 초청받았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청년문화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광주문화재단, 예술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연)은 ‘2021 지역 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청년문화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문화예술단체(법인·기업 등 포함)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단체’는 부족한 인력을 ‘청년인력’은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모집은 ‘문화예술단체’와 ‘청년인력’ 등 2개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문화예술단체(법인·기업 등)는 5개를 최종 선정하고, 별도 채용공고를 통해 청년인력 5명을 선발해 각 단체에 배치한다. 단, 단체는 배치된 청년인력의 매월 인건비(200만원) 중 20%(40만원)와 4대보험 법정 부담금 등을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

신청양식은 참여단체신청서, 단체증빙서류(사본) 등이며 오는 4월 2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접수(ysh1707@gjcf.or.kr)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5개 단계 선정 이후에는 청년인력 5명에 대한 채용공고가 오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 인력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각 단체에서 근무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문의 062-670-749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구문화원, 시민 위한 문화유산 아카데미 강좌

12월까지 마지막 주 월요일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고 소중히 간직하는 취지로 2021년 시민을 위한 문화유산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광주, 천년의 과거 천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서구문화원 강의실에서 모두 10회 진행된다.

29일 열린 첫 강좌는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이 ‘역사 속에서 형성된 남도인의 정체성, 정의로

움’을 주제로 놀재 박상을 비롯해 남도인의 정의에 대해 강연했다.

4월 26일에는 조현중 전 국립광주박물관장의 ‘광주 신창동 유적의 성과와 과제’, 5월 31일 천득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광주의 옛 건축이야기’가 펼쳐진다. 6월 28일에는 김정호 향토문화진흥위원장의 ‘광주의 길을 찾아서’, 7월 25일에는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의 ‘역사 속의 광주와 광주사람’이 진행된다.

광주의 근대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강연도 마련

돼 있다. 8월 3일에는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광주의 근대문화’를 매개로 지역의 근대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 9월 27일은 지형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 회장이 ‘전라도 문화 수수께끼’를 강의하며, 10월 25일은 이용식 전남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광주의 전통음악’을 시민들과 이야기한다.

11월 29일에는 이동순 조선대 교수의 ‘광주문학 100년의 소사’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12월 27일에는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장이 ‘공감과 소통을 위한 미술관’을 풀어낼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정호 향토문화원장



조현중 전 박물관장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